

Part 1 — 돈의 종말

두 가지 위험한 착각으로 시작합니다

· 정리 2026-05-13

닉슨 후 24개월: S&P -26%. 2026년의 평행이론.

1972년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기준금리를 9%에서 3%대까지 대폭 인하했습니다. S&P 500은 1971년 +14.3%, 1972년 +19% 급등했고 닉슨은 선거인단 520대 17 압승.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어김없이 12~18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CPI 3.2% → 8.7% → 12.3%, S&P -15%, -26%**. 호황 후 폭락. 2026년의 트럼프는 이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파월은 단기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12~18개월 시차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차는 그 메커니즘과 강도가 짙은 모니터링 신호 세 가지로 담습니다.

-26%

1974년 S&P 500 — 닉슨이 1972년 만들어낸 호황의 24개월 뒤

2025년 12월, 우리는 어떤 카운트다운의 출발선에 섰을까요?

두 가지 위험한 착각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40년의 저물가는 세계화라는 특수한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하고 아프리카·남미에서 자원을 손쉽게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경제는 자국 이익 중심의 블록화 단계로 진입했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고령화 = 디플레이션** 통념입니다. 일본 사례(고령화 → 디플레)에서 비롯된 공식이지만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거 G2 경제 대국이었고 엔화는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G2에 오른 적 없고 세계 경제 순위 가장 높았던 기록은 9위였으며, **원화는 국제 통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았습니다.**

일본조차 고령화 가속과 함께 엔화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 인플레이션은 **결코 일정한 비율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주기적인 등락을 반복합니다. 급등하면 긴축으로 잡고, 잠시 잡힌 듯하다가 다시 통화 공급으로 폭등 — 이 지그재그가 "물가는 잡혔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올바른 관점은 단순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약 18개월 후에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는 것. 다음 카드에서 그 18개월 시차의 정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2~18개월 시차의 정체 + M2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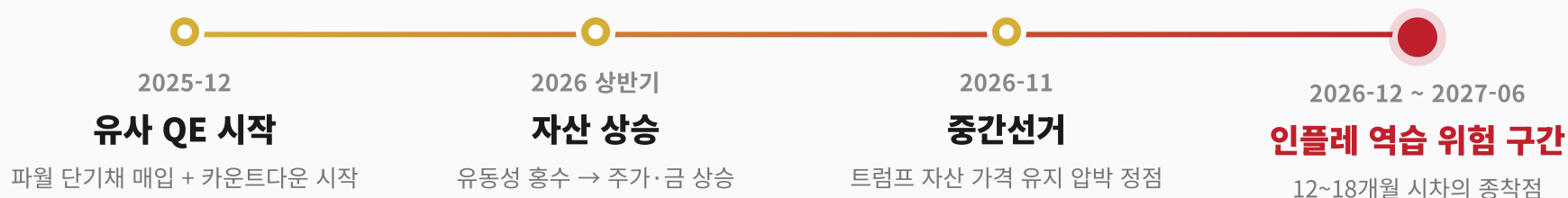
본 회차의 핵심 시점은 **2025년 12월** — 파월이 단기채 매입(유사 양적완화)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 12~18개월 후, 즉 **2026년 12월부터 2027년 6월** 사이가 인플레이션 역습의 위험 구간입니다. 통화량(M2) 증가 → 자산가격 상승 → 약 18개월 시차 → 인플레이션 폭발. 이 메커니즘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 시차의 **연료**는 무엇인가요? **풀린 돈, 즉 M2 통화량**입니다. 미국·EU·일본·중국 주요 4개국의 M2 합산 추이는 명확합니다.

1995년 14조 달러였던 것이 2025년 95조 달러 — **30년 만에 약 7배**. 본래 M2는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정상이지만, 인류는 항상 성장보다 빠르게 돈을 찍어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연준은 **양적완화(QE)** 라는 신무기를 도입해 본원통화(M0)를 직접 찍어냈고, 신용 경색 여부와 관계없이 M2가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로 반응했고, 연준의 QE 신호 → 2~3주 안에 주식 매수의 패턴이 자리잡았습니다.

12~18개월 시차 카운트다운



M2 30년 7배 + 한국은 더 빨랐다

15년의 QE 시대가 끝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미국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9% 돌파로 잊혀졌던 '긴축'이 다시 등장했고, 2022년부터 한국 부동산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23~2024년 독자적으로 막대한 통화를 공급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한국 M2는 +21%(구 기준), 강남 아파트 공급은 단 +2%였습니다. 돈이 21배 더 풀렸는데 공급은 2%만 늘었으니 강남 부동산이 약 2배 폭등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급량이 아니라 통화량(유동성)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한 집값은 오릅니다. 다만 환율 급등이나 통제 불능 인플레이션 같은 제약 조건에 부딪히기 전까지 — 이 두 변수가 향후 한국 부동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요 4개국 M2 — 30년에 7배

1995년

닷컴 이전 정상

\$14조

출발선

2007년

금융위기 직전

\$30조

12년에 2배

2025년

QE 누적 + 유사 QE

\$95조

추가 18년에 3배+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돈을 찍어내려는 유혹 — 인류는 매번 같은 함정에 빠진다. 한국은 더 빨랐다.

한국 강남 — 돈 +21% vs 공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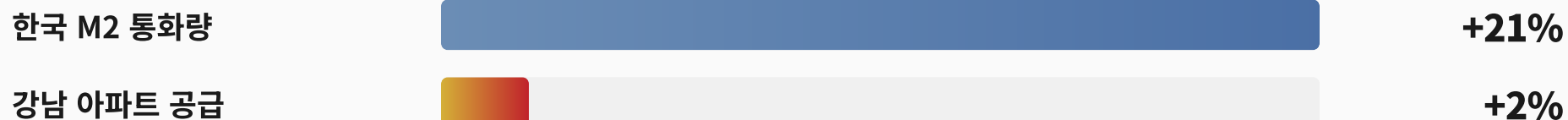
약 10배 격차가 강남 부동산 2배 폭등의 메커니즘입니다. 공급 정책이 아니라 통화량이 결정 변수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새 돈을 풀면 모두에게 골고루 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도달하는 순서**가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칸틸런이 발견한 현상이라 '**칸틸런 효과(깡띠용 효과)**' 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면 그 돈에 가장 먼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유층이 자산을 매입한 뒤 가격이 오릅니다. 그 후에야 서민에게 대출 기회가 돌아오고, **이미 오른 가격에 자산을 사야 합니다.**

강남에서 일어난 일은 글로벌 패턴의 한국 버전이고, 다음 카드에서 그 패턴의 본격적인 작동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 M2 vs 강남 공급 (2022.1 ~ 2026)



약 10배 격차가 강남 부동산 2배 폭등의 메커니즘. 공급 정책이 아니라 통화량이 결정 변수다.

2008년 부동산이 보여준 캔틸런의 실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 부유층은 신용 경색기였던 2001~2002년에 이미 저렴하게 대출받아 부동산이 매우 낮았을 때 집을 사두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30% 하락에도 2001년 가격 대비 여전히 2~3배 오른 상태로 큰 타격을 피했습니다.

반면 서민은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서민도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2006~2007년 부동산 가격의 마지막 불꽃에 매수했고, 2008년 붕괴와 함께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막차에 탄 서민이었습니다.

이 캔틸런 효과의 **누적**이 지난 35년간 미국에 만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990년대 클린턴 시절 미국 하위 90%는 전체 자산의 40%, 상위 1%는 22%였습니다. 부가 비교적 고르게 분배된 시기였기에 모두가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경기 침체마다 막대한 돈을 풀면서 격차는 누적됐고, **2015년 마침내 상위 1%가 하위 90%를 넘어서는 부의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같은 부의 역전은 1927년 단 한 번 — **1929년 대공황의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캔틸런 효과 3단계 — 2008 미국 부동산 사례

STAGE 1

부유층 매입

2001~2002 신용 경색기
VIP 대출 + 저금리로 부동산
매입 — 가장 낮은 가격대



STAGE 2

가격 상승

2003~2005 유동성 확산
자산 가격 본격 상승. 미디어
가 호황 분위기 조장



STAGE 3

서민 막차

2006~2007 고점 직전
부시 서민 대출 프로그램 + 포
모(FOMO) → 꼭짓점 매수 →
2008 붕괴

10년 후 — 부의 분포는 어떻게 갈라졌나

강의 시점의 "2015년 부의 역전"은 그 후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외부 자료가 답을 줍니다(+ 1).

2025년 3분기 기준 미국 상위 1%는 전체 가계 자산의 31.7%, 약 55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22%에서 35년에 걸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 하위 90% 전체와 사실상 동등한 수준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자산 구성의 갈라짐입니다. 상위 1%는 주식·뮤추얼펀드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 90%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본 회차 후반부의 비트코인 vs 금 자산 시장 차별화 메커니즘이 자산 계층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동성이 풀릴 때 상위 1%는 주식·금 같은 유동성 자산을 즉각 매수하고, 부동산에 묶인 하위 90%는 거래 빈도와 시차의 양쪽에서 뒤처집니다. 그래서 **더 풀면 더 갈라지는 메커니즘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 다음 카드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38조 달러 부채와 8배 급등한 장기 금리 앞에서 어떤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는지 봅니다.

미국 상위 1% 자산 비중 — 35년 추이

1990년대

클린턴 시절

22%

하위 90%(40%) 절반

2015년

부의 역전 시점

≈ 30%

하위 90% 첫 추월

2025 Q3

현재

31.7%

\$55조 ≈ 하위 90% 합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같은 부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위험합니다.**

트럼프 38조 + 10년물 8배 급등

바이든 행정부는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선택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하위 90% 자산 비중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대가는 미국 국가부채 +11.8조 달러 추가, 누적 38조 달러. 이 부채는 10년·30년 만기 국채로 미래 세대에 떠넘긴 빚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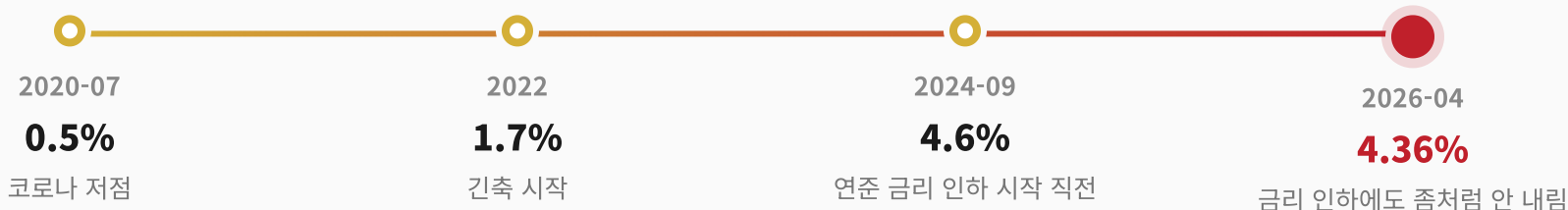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문제적인 정책 — 대규모 감세를 더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겠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감세 규모가 관세 수입보다 훨씬 클 것이 자명합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0년 7월 0.5%에서 4.36%(2026-04)까지 약 8배 급등. 연준이 2024년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10년물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탓입니다.

5~10년 만기 회사채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4%대 장기 금리는 투자 결정을 막는 부담입니다. 실제 미국 전체 기업 투자는 5% 감소했습니다(AI 분야는 +30% 예외). 기업 투자 둔화 → 트럼프 정부의 다급함 → 마지막 수단 동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세 가지 수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채 위주 발행 + 동맹국 자금 활용 + 유사 양적완화 — 이 셋이 결합되면 결국 유동성 홍수에 도달합니다. 다음 세 카드에서 차례로 들여다봅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0.5% → 4.36%



마지막 수단 (1·2) — 단기채 + 동맹국 자금

본래 미국 재무부 준칙은 **장기채 80% / 단기채 20%**였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를 깨고 **단기채 55% / 장기채 45%**로 발표했습니다(일부 분석은 단기채 발행 비중이 80%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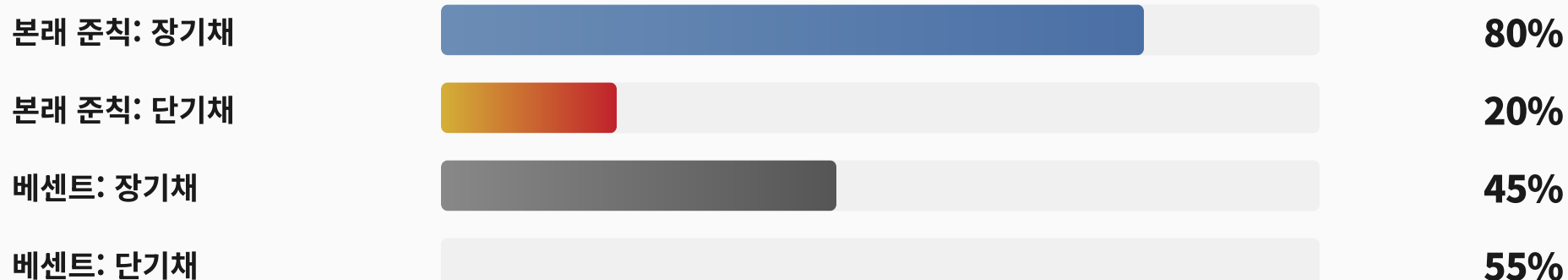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장기채 금리를 끌어내려야 하는데, 장기채를 대량 발행하면 수요 부족으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장기채 발행량을 줄이는 것**.

부작용은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고갈**로 즉각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단기 자금 시장과 장기 자금 시장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단기채는 주로 MMF가, 장기채는 연기금이 주로 매입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단기채만 대량 발행하자, 단기 시장의 유동성이 갑자기 고갈됐습니다.

두 번째 수단은 **다른 나라 자금 활용 전략**입니다. 두 갈래로 작동합니다 — 첫째 **관세 폭탄**으로 부족한 세수 충당, 둘째 한국·일본·EU 등 동맹국에 미국 내 투자를 강력 요구하는 **사실상의 강제 투자 유치**.

다만 관세 수입은 전체 세수 부족분의 1/10도 채우기 어렵고, 강제 투자 약속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입니다. 트럼프 임기가 2년 미만 남은 상황이라 동맹국들은 이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부 준칙 깨기 — 80/20 → 55/45



장기 금리 압박을 줄이려는 꼼수 — 단기 시장이 정부 수요로 마르면서 비트코인이 30% 하락.

마지막 수단 (3) — 2025-12 유사 양적완화

동맹국 자금 활용도 변수에 부딪힙니다. 관세 정책은 대법원 판결로 뒤집힐 위험이 있고, 강제 투자는 동맹국이 임기 종료까지 시간 끌면 끝납니다. 만약 두 갈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투자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이는 2026~2027년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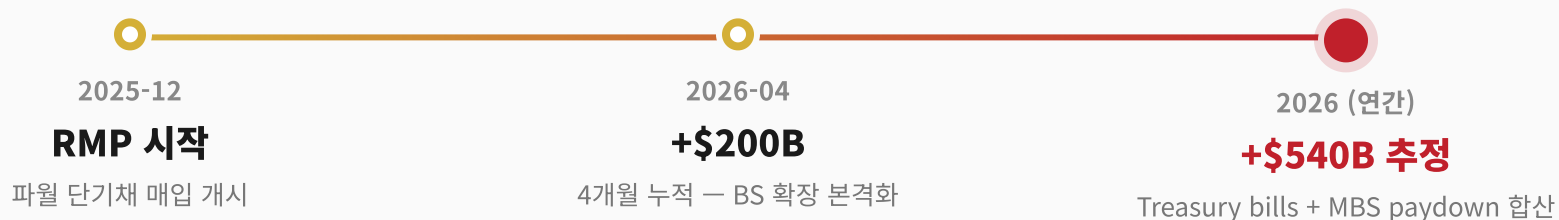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수단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2025년 12월** — 트럼프 정부의 단기채 발행이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흡수하자 **파월 의장은 불가피하게 단기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파월은 "단기채 매입일 뿐 양적완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활동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하는 양적완화입니다. 이 '**2025년 12월**'이라는 시점은 **12~18개월 인플레이션 시차의 출발점**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 자료로 진행 속도를 확인하면(+2), 연준의 Reserve Management Purchases(RMP) 시작 후 **4개월 동안 연준 대차대조표는 약 +\$2,000억** 확장됐고, 2026년 한 해 RMP 추정 규모는 약 **+\$5,400억**(MBS paydown 포함)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이 결합되면 결국 **유동성 홍수**에 도달합니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12~18개월 시차 후 인플레이션 폭발.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 다음 카드에서 그 메커니즘을 봅니다.

연준 RMP — 4개월 진행률 + 2026 추정



비트코인 vs 금 — 자산 시장의 첫 신호

단기채 발행이 급증하자 자산 시장에 즉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30% 하락한 후 한동안 회복하지 못했고, 금값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자금 성격의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금융시장 자금으로 움직이고, 금은 중장기 자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를 늘리자, 단기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값은 반대로 — 중장기 자금이 단기 시장 압박을 피해 금으로 흘러간 결과 폭등.

2026년 가장 먼저 주목할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 유동성의 풍부 여부를 가리키는 가장 빠른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한다면 단기 자금이 풀려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신호.

이 모든 메커니즘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72년 닉슨이 재선을 위해 정확히 같은 일을 했고, 그 결과 24개월 뒤 S&P 500은 -26%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평행이론을 봅니다.

비트코인 vs 금 — 자금 성격이 다르다

지표	비트코인 (단기)	금 (중장기)
주요 자금원	단기 금융시장 / MMF	중장기 투자 / 외환보유고
2025-12 단기채 폭증 직후	30% 하락	꾸준한 상승
역할	단기 유동성 바로미터	탈달러 + 인플레이 헷지
2026-05 시점	회복 신호 (1월 이후 최고치)	\$4,500/oz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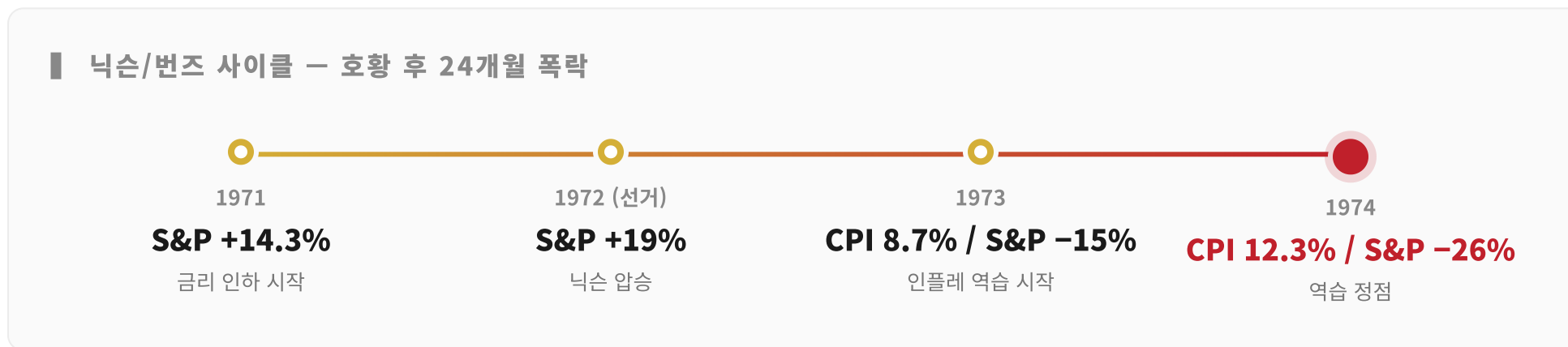
1972년 닉슨/번즈 평행이론 + 2026 시나리오

역사가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1972년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은 닉슨 재선을 돕기 위해 기준금리를 9% → 3%까지 인하. S&P 500은 +14.3%, +19%, 닉슨은 선거인단 520대 17 압승.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어김없이 12~18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1972년 3.2%로 통제되는 것 같았던 CPI가 1973년 8.7%, 1974년 12.3%로 치솟았고, S&P 500은 1973년 -15%, 1974년 -26% 라는 엄청난 하락.

2026년 시나리오는 강사가 셋으로 정리합니다. (1) 경기 불황 → 돈풀기 → 시차 후 인플레 / (2) 3% 마일드 인플레 + 트럼프 압박 → 자산 상승 후 연말 압력 (가장 가능성 높음) / (3) 상반기 조기 인플레 → 긴축 → 자산 하락.

다만 2026-04 시점에 PCE가 이미 강사 경계 수위 3.5%에 정확히 도달했고(+3), 이란 전쟁이라는 새 인플레 변수까지 추가됐습니다. (3)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강의 시점 대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5월 15일 파월 해고 위협은 이 변수의 정치 쪽 측면.



†3 Fortune — 4-29 FOMC + PCE 3.5% fortune.com

튀르키예 사례 — M2 30배의 결말 + 노선 전환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내린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튀르키예 M2는 2012년 7,400억 리라에서 **22조 2,000억 리라로 30배**, 인플레이션 **85%**(2022년 10월 정점), 리라화 가치 **24분의 1 토막**.

흥미로운 결과 — 통화량 30배 풀렸는데 집값은 14배에 그쳤고, 환율은 24배 상승. **부동산 투자자 (13.75배) vs 달러 투자자(24배)** — 달러 투자자가 승자였습니다.

다만 강의 인용 사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4). **2023년 에르도안은 새 경제팀을 임명하며 정통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했고,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상 → 인하 사이클을 거쳐 2026년 3월 정책금리 37%로 첫 동결.

평행이론은 정책 동기의 닮음을 가리키지 결과의 자동 반복은 아닙니다. 트럼프도 닉슨·번즈 사례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정확히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 있다는 nuance — 다만 결과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과 외부 충격이 동시에 빛는 함수입니다.

■ 튀르키예 — 통화량 30배의 결말

지표	변화 (2012 → 2025)	비고
M2 통화량	7,400억 → 22조 2,000억 리라 (30배)	에르도안 통화 폭주
주택 가격 지수	120 → 1,650 (13.75배)	M2 따라가지 못함
USD/TRY 환율	1.8 → 43 (24배)	달러 투자자가 승자
인플레이션 정점	85% (2022.10)	1년 안에 85% 하락
2023~2026 노선	정통 정책 회귀 + 2026-03 첫 동결	강의 인용 후 변화

미국이 튀르키예보다 더 취약한 이유

직관과 반대로, 인플레이션 문제만큼은 패권국가인 미국이 약소국 튀르키예보다 더 취약합니다.

튀르키예는 물가 85% 폭등에도 경제가 완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리라화 가치 폭락이 수출 경쟁력 + 관광객 유입으로 일부 완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적 지위 위협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IMF COFER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2025 Q4 기준 57%, 1994년 이래 최저입니다(+5). 1999년 71%에서 14%포인트 하락.

동시에 중앙은행 금 매입은 연 1,000톤+ (2022년 이전 ~500톤 대비 2배), 외환보유고 금 비중은 23%+ (2015년 <10% 대비 2배). 구조적 트리거는 2022년 러시아 외환 \$3,000억 동결 —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 보관한 외환은 압류 가능하다는 신호.

미국 vs 튀르키예 — 패권의 함정

변수	튀르키예	미국
통화 폭락 시 완충 장치	수출 + 관광 (있음)	탈달러 가속 (없음)
인플레 대응 자유도	방관 가능 (한계는 있음)	즉각 긴축 강제
외환보유고 위협	자국 한정	세계 기축통화 지위
결말 시나리오	인플레 + 통화 폭락	긴축 + 자산 가격 변곡

인플레이션 4단계 + 4% 트리거 + 시차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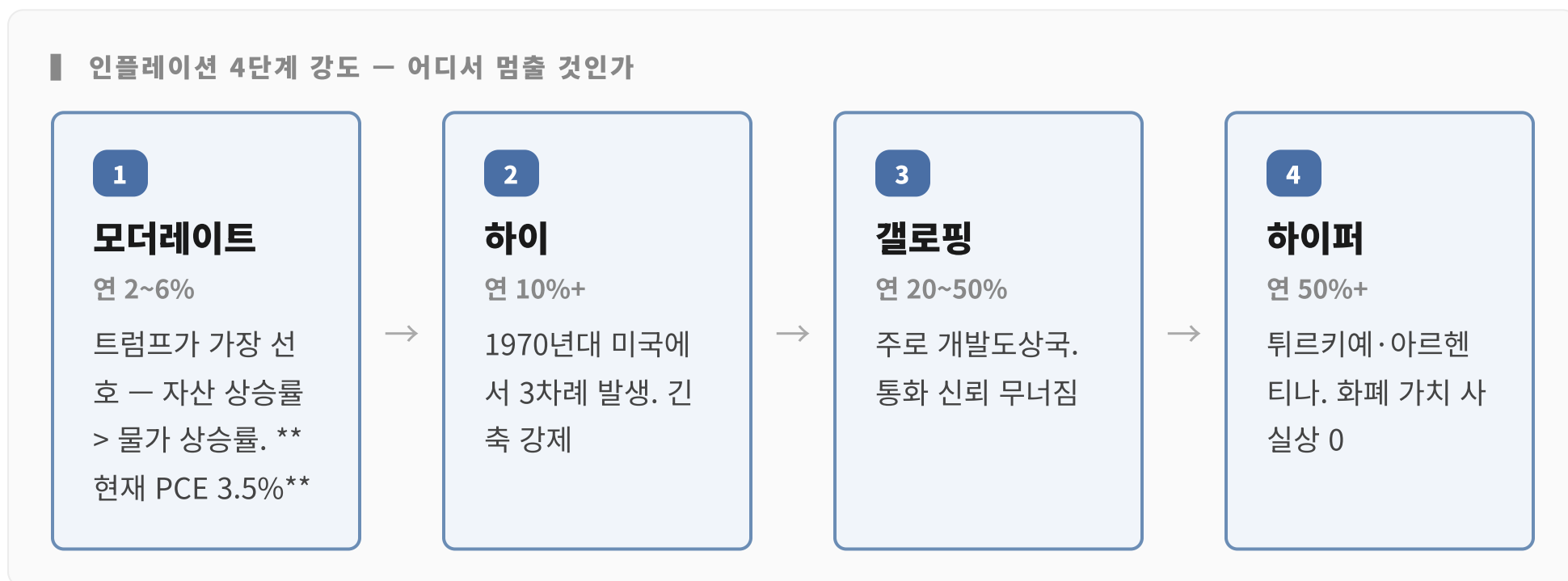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은 항상 실패해 왔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겪은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시차의 존재**입니다 — 정책 결정자들은 돈을 풀어 당장 물가가 안 오른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통화 팽창을 지속하다, 결국 통제 불능에 이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돈을 풀어도 실제 물가 상승은 18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직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다음 총재에게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강사의 인플레이션 경계 수위는 **3.5%**, 위험 수위는 **4%**입니다. 본래는 2.5%/3%였지만 트럼프의 지속적 압박으로 상향 조정. **3.5%는 모니터링 시점, 4%는 강의를 짚은 긴축 강제 신호**입니다.

4%를 돌파하는 순간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심리적 충격 + 트럼프 핵심 지지층(서민)의 직접적인 생활고 → 본격 긴축 대응이 불가피. 트럼프 임명 의장도 그 순간엔 동결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차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시차를 역이용하는 것** — 다음 카드에서 봅니다.



시차를 역이용하는 지혜 — 삼성전자의 사례

캔틸런 효과의 정점, 즉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항상 실패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시차의 노예가 되어 꼭짓점에서 자산을 매입한 후 시장 붕괴 시 자산을 잃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이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대표 성공 사례 —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진출 시점이 호황이 아닌 미국·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줄도산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장비를 매우 저렴하게 확보했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앞으로 AI 산업이 칩체기에 접어들어 엔비디아 칩 수요가 급감한다면, 칩셋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AI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경제 방송이나 증권 방송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하는 공포(FOMO)가 조장될 때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이 시차를 반대로 활용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1972~1974년에서 이미 봤습니다. 닉슨의 24개월 호황은 S&P -26%로 돌아왔고, 2026년 트럼프의 유동성 홍수는 그 평행이론입니다.

다행인 것은 21세기에는 **시차를 인식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유동성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PCE가 4% 트리거를 알려주고, 외부 자료가 강의 시점 이후의 진행을 정량으로 보여줍니다. **기회를 잡되 취하지 마십시오** — 다음 카드에서 본 회차의 세 가지 모니터링 신호를 정리합니다.

다음 30년의 격차 — 시차를 인식하는 자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1972~1974년에서 이미 봤습니다. 닉슨의 24개월 호황은 S&P -26%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트럼프의 유동성 홍수는 그 평행이론입니다.

다행인 것은 21세기에는 시차를 인식하고 출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유동성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PCE가 4% 트리거를 알려주고, 외부 자료가 강의 시점 이후의 진행을 정량으로 보여줍니다.

기회를 잡되 취하지 마십시오. 2026년의 유동성 홍수는 분명한 기회, 다만 1974년의 -26%를 1972년 한가운데서는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한 줄로 — 시차를 인식하고, 출구를 미리 준비하라.

다음 회차 예고 — Part 1-4 (2026-01-22)

(다음 회차 — 다극화 시대의 자산 보존 전략)

본 회차의 § 15 미국 패권통화 취약성 + § 10~11 트럼프 마지막 수단 3종이 다음 회차의 디딤돌. 다극화 시대 한국 투자자의 액션 가이드로 발전합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1-3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지표 출처: federalreserve.gov · cbsnews.com · wolfstreet.com · data.imf.org · gold.org · fortune.com · turkiyetoday.com